

“지방이양사업 자원 보전 5년 연장해야”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7개도 공동건의문 제출...교부세 감소분 우선 보장도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재의 재정분권 방안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 불리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지방재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우선 2023년 종료되는 지방이양사업 자원 보전을 5년 연장하고, 교부세 감소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선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8000억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 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자치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도의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 자원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교부세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정부 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1단계(2019년~2020년)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가사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3년만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이면서 도(道)는 재원이 대폭 감소해 균형발전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통 된장 발효관리 스마트화 전남농기원, 환경제어기술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8일 “농가 전통 된장에 스마트 환경제어 기술을 도입한 발효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년 동안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스마트 환경제어 시설을 적용한 농가형 ‘전통 한식 된장’의 품질과 제조환경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천년 이상 이어온 전통 한식 된장은 필수아미노산, 유기산, 무기질 등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콜레스테롤을 저하, 혈전 용해 및 항산화 효과 등 효능이 뛰어난 식품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이상고온과 같은 기후변화로 노지에서 주로 발효와 숙성을 하는 전통 한식 된장의 향아리는 여름철에 최대 60~70℃까지 높아지고 생산수율, 품질저하 등 생산 관리와 품질 안전성에 대한 애로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온도, 일사량, 내부기류의 환경요인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측정, 광감, 환기팬, 배기팬이 설치된 시설을 적용해 노지의 한식 된장과 품질을 비교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전통 된장의 품질 개선을 위한 영향요인 평가를 추진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천원 여객선’ 다음달 운행

932개 구간 도입 5만여명 혜택

전남도는 ‘1000원 여객선’ 시행을 위한 전산 발권시스템 개발을 완료, 오는 31일까지 4일간 시범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1000원 단일 요금제는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지난해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육지보다 큰 비용을 내야 하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총 1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섬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운임 8340원 미만)에 대해 시행한다. 932개 생활구간은 지난해 말 기준 섬 주민 누적 이용객 198만 1000명 중 75%에 해당하는 154만9000명이 이용한 구간이다.

섬 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객선 운임 8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 ▲8340원 이상부터 3만원 이하는 5000원 ▲3만원 초과부터 5만원 이하는 6000원 ▲5만원을 초과하는 운임 구간은 7000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연안해운 교통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거문도, 흥도 등 8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내 전 구간에 걸쳐 1000원 여객선 단일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을 지키며 사는 주민의 해상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착공식이 28일 오전 광주역 주차장에서 열려 이용섭 광주시장등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핵심’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착공

350억 투입해 창업 거점 조성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육성

광주역 일대에서 추진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28일 광주역 주차장 부지 내 사업대상지에서 착공했다.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은 350억원을 들여 부지 5500㎡에 연면적 8950㎡,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1~3년 차 초기 창업-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입주·보육, 협업, 교육, 복합문화 공간 등을 갖춘 예정이다.

KTX의 승정역 일원화로 쇠락한 광주역 일원의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업 벨리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주역 일대에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혁신지구, 민간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호남권 최대 창업 단지를 육성할 방침이다. 광주역 구내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를 통해 확보되는 공간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역 부지 20만㎡에 7000억원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교통, 산업, 주거가 복합된 역세권으로 개

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2호선, 최근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 경전선(광주역~순천) 전철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연계해 광주역을 교통 중심지로 되살리겠다는 게 광주시의 의지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을 통해 2조원 생산 유발 효과, 1만6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00년대 들어 쇠퇴의 길을 걸은 광주역 일대가 앞으로 4년 뒤에는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는 혁신 거점이자 ‘찾아오는 광주’의 대표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전남도, 5대 대책 농가교육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친환경 인증 취소 제로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성분검사 확대 등 안전성 관리 5대 강화책에 대한 농가교육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작해 2만8000여 건 친환경농가에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통합메시징 시스템으로 문자 발송하는 비대면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자료에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성분검사 확대(320→511성분)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신고 안내 ▲농약 살포 인증 취소 농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농약 혼용 등 인증 취소 원인 방제·자재업체 사업 참여 영구제한 ▲최근 5년간 농약 검출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의 정보가 담겼다.

전남도는 2만8000여 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해 병해충 방제 시기에 공동방제 사전신고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 등을 이행토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2월까지 4일간 여수 등 1천360개 친환경농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 사전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단지는 이달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약 사용 의심 4개 단지는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추첨(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좌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을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제할 적용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9번길22-2)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